



2022.9.30
ISSUE NO. 8

금산인삼

Geumsan
Ginseng
뿌리입니다

40th

금산인삼축제
Geumsan Insam Festival



‘40년의 정성 피어나는 생명의 꽃’ 제40회 금산인삼축제 30일 개막 의식 및 의전 간소화, 축제로 하나되는 화합과 소통의 장 조성



제40회 금산인삼축제 개막식(박범인 군수(좌), 심정수 금산군의회위원장)

‘40년의 정성 피어나는 생명의 꽃’을 주제로 개최되는 제40회 금산인삼축제가 30일 개막goTek.

금산군은 이날 오전 10시 남이면 개삼터 개삼각에서 제40회 금산인삼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삼제를 개최goTek.

개삼제는 매년 인삼축제의 첫 행사로 금산의 발전과 군민의 건강, 축제의 성공 등을 기원하는 전통 의식이다.

오후 7시 축제장 주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 행사에서는 11일간 펼쳐지는 이번 축제의 성공과 안녕을 기원하고 세계 최고의 축제로 도약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았다.

특히, 의식 및 의전을 간소화해 참여자 중심의 행사를 마련하고 관광객과 군민이 축제로 하나 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군은 실제 참석자 위주의 초청대상자를 선정해 초청장을 발송해 3000여 명이 행사에 함께했다.

식전 행사에서는 금산군다락원 예술단의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금산소년소녀합창단, 금산인삼골합창단 등이 참여하며 공식행사는 제1회부터 39회까지의 역사를 담은 영상을 송출하고 미래비전을 담은 미디어 개막 퍼포먼스가 공개됐다.

이어지는 축하공연에는 흥진영, 신유, 김다현, 윤수현 등의 공연이 선보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금산인삼축제 개막식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관람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며 “축제가 끝날때까지 건강과 재미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군]



제40회 금산인삼축제 개막식 관람객



개삼제(박범인 군수)



개삼제(일곱선녀의 춤)



야간 빛의 정원



제23회 국제인삼교역전

금산군,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유치 최종 확정 남부권 주민 접근성 강화 및 균형발전 협력 등 추진



● 논산시청 ● 계룡시청 ● 금산군청 ★ 출장소 예정지

금산군은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유치 공모 결과 지난 15일 군의 출장소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남부출장소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충남도 남부권 주민들의 민원 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지난 8일 남부출장소 유치 공모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5일 평가위원회 적격여부 심사 및 대면발표 평가결과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평가항목의 30점에 해당하는 입지 여건에서 군은 남부권 주민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유치장소를 진산면에 소재한 진산애행복누리센터로 제시했다.

또한 효과성(70점) 평가항목에서 남부권역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인삼 등 특산물을 연계한 군납식품 개발, 남부권 균형발전

협력체계 마련 등 미래전략을 내세웠다.

충청남도 남부출장소는 당초 계획대로 10월 중 남부민원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내년 1월 정식으로 민원지원과, 국방협력과, 인삼약초세계화과 등 3개과 12명 조직으로 구성된 남부출장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5만여 금산군민의 염원이자 김태흠 지사님의 약속인 충청남도 남부출장소를 금산군에 설치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남부출장소를 중심으로 남부권 시·군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남부출장소 유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주신 금산군의회 심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관내 기관·사회단체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금산군]

명품 인삼 글로벌 건강축제 진수 제40회 금산인삼축제 개막 'D-DAY' 미래 소비 주역 어린이·젊은층 콘텐츠 보강 및 인삼음식 소비 확대



금산군은 23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개막까지 7일 남은 제40회 금산인삼축제 준비상황을 알렸다.

15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삼의 본고장 금산군에서 열리는 제40회 금산인삼축제는 '40년의 정성, 피어나는 생명의 꽃'이라는 주제로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금산인삼관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40회를 맞이한 금산인삼축제는 기존 진행해 오던 일정보다 하루 더 길어진 11일간 치러지며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특히, 미래 소비 주역인 어린이와 젊은 층을 위한 콘텐츠를 보강해 축제가 더 젊어졌다.

로봇을 활용해 어린이에게 인삼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미래 로봇관을 신설해 댄스로봇을 비롯

해 로봇배틀, 자이로 로봇·곤충로봇 만들기 등을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이동 대형 로봇과 함께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어린이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었던 건강놀이터는 샌드아트체험, 편백놀이터, 골판지 미로체험 등이 추가돼 체험거리를 확대했다.

과거 추억을 젊은층과 공유하는 복고 감성의 응답하라 1981을 통해 금산인삼축제 첫 회가 개최된 금산의 80년대의 백작소 등으로 구성된 추억의 거리가 조성되며 추억의 학교, 추억의 다방 등에서 매일 새로운 관광객 참여 이벤트가 진행된다.

여기에 사방놀이, 비석치기 등의 추억 놀이와 함께 주말에는 복고댄스공연도 관람할 수 있어 축제의 흥을 더할 계획이다.

젊은층을 위한 공연으로는 전국 치어리딩 경연, 금산 인삼 K-Pop 페스티벌, 대한민국 힙합 콘서트 등이 선보인다.

축제장 인근의 인삼약초시장은 차 없는 거리로 새롭게 변화된다. 차 없는 거리에는 인삼저장거리를 비롯해 인삼아트체험, 건강미용체험, 거리의 라디오 쇼 등 색다른 재미와 즐길거리가 넘쳐난다.

인삼저장거리에서 인삼씨앗고르기, 인삼깎기, 인삼 접기·말리기, 인삼무게달기 등 전통인삼문화체험이 풍부하게 준비됐다.

인삼아트체험에서는 인삼부채만들기, 인삼문양 탁본 체험 등 인삼과 문화예술이 접목된 체험거리가 제공된다. 대형 붓글씨와 인삼을 함께 그리는 대붓 서예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건강미용체험에서는 인삼화장품만들기, 인삼비누만들기, 네일스티커체험 등 미용에 관심이 높은 여성들을 위한 체험이 가득하다.

전문 DJ가 진행하는 거리의 라디오 쇼는 관광객의 신청곡과 함께 즉석 댄스대결 등이 진행돼 관람객들의 웃음을 자아낼 예정이다.

야간의 볼거리도 빼놓을 수 없다. 행사장 중앙에 인삼을 주제로 한 미디어 영상과 LED 조명, 빛 조형물 등을 활용해 500여 평의 규모로 야간 빛의 정원이 조성된다.

또, 40주년을 맞아 K-트롯대전, K-드라마 OST 콘서트, 추억의 가요톱10 콘서트 등의 특별공연과 금산전통 민속공연인 농바우끄시기가 야간시간에 무대에서 진행돼 가을밤을 풍성하게 꾸밀 예정이다.

해마다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는 건강체험관은 홍삼 족욕, 홍삼팩 마사지 등 인삼을 건강에 접목한 체험이 한층 보강되며 여기에 이혈체험, 안구건조증치료체험, 저주파 발관리체험 등 전문건강체험이 알차게 선보인다.

축제 기간에만 마음껏 체험이 가능한 인삼캐기체험에서는 인삼밭에 직접 들어가 가족이 함께 인삼을 캐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싱싱한 금산 인삼을 저렴하게 바로 구입할 수 있다.

국제인삼교역전에서는 홍삼농축액, 엑기스, 절편, 홍삼주 등 인삼 가공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어 알뜰쇼핑이 가능하며 금산인삼 직거래장터에서는 인삼재배 농민단체들이 판매하는 GAP 인증 금산인삼



도 구입할 수 있다.

금산인삼관에서는 금산인삼의 역사와 재배과정, 특이인삼, 인삼요리별 효능 및 특징은 물론 3D 영상체험관을 통해 인삼에 대한 재미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삼으로 즐기는 먹거리도 행사장 곳곳에 가득하다. 스트릿인삼 푸드존에서는 인삼을 넣은 간편 음식을 푸드 트럭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금산만의 특색 있는 삼계탕과 인삼요리를 맛보고 싶다면 인삼약초음식코너를 방문하면 된다.

관람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길거리 버스킹과 뚝딱이 핸드 메이드 공예전시, 분재 전시 등도 선보인다. 올해 40주년을 축하하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환상적인 에어쇼도 빼놓을 수 없는 축제의 재미다.

축제기간 11일 동안 주무대에서는 전국 금산인삼 동요 경연대회, 전국 건강댄스 경연대회, 전국 커피 바리스타 경연대회 등의 전국형 경연과 금산 한마음 가요 콘서트, 금산 문화예술 한마당 등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하는 공연도 다채롭게 준비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가을철 바쁜 일상 속을 떠나 금산인삼축제를 방문해 축제도 즐기고 신선한 수삼은 물론 인삼약초선물세트를 구입해 미리 가족 건강을 챙긴다면 남부럽지 않은 힐링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81년부터 개최돼온 금산인삼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전국 최우수축제 10회 선정의 화려한 경력과 2010년 세계축제협회의 축제도시 선정에 이어 피나클 어워드 12회 수상 등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형 축제로서 명성을 쌓아오고 있다.

제 4 회

금산 인삼초 축제

2022.9.30(금) ~ 10.10(월)

금산인삼관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



금산군



금산축제관광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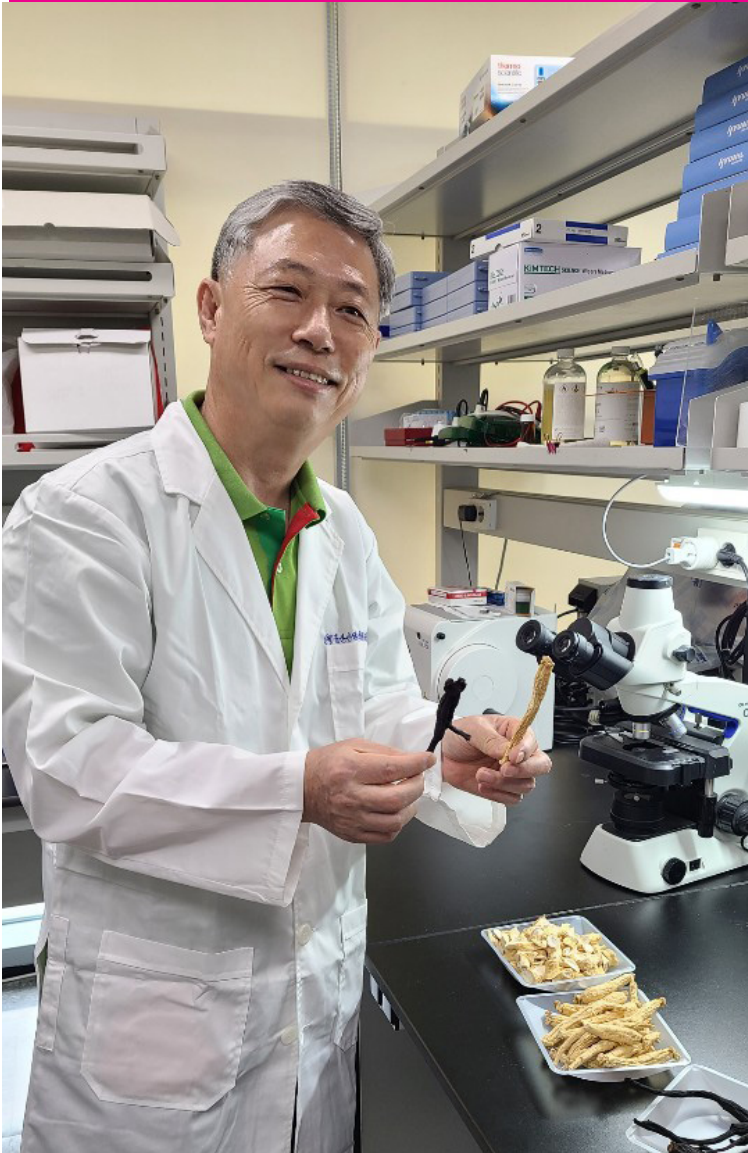
“금산 인삼, 국내 대기업 제품보다 품질 뒤처지지 않아”

[인터뷰] 김영수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진흥원, 30종 이상 신제품 개발

수삼 70~80% 금산시장서 거래

금산인삼,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인삼의 본고장 금산의 인삼을 연구 발전시키고 있는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김영수 원장을 만나 인삼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들어본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은.

"금산지역의 인삼약초에 관한 연구와 안전성 향상을 목표로 2009년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로 출발해, 2021년 6월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됐다. 연구원 역할은 첫째 연구개발을 꼽을 수 있다. 78건의 등록특허를 활용, 43건의 기술이전을 실시해, 30종 이상의 인삼유래 신제품 개발을 했다. 둘째 관내 기업인들의 교육과정 운영, 마케팅 역량 향상과 수출 확대 등 기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셋째 연평균 3500여 건의 제품검사, 700여건의 유해물질검사 등을 통해 지역 농·식품 생산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800여 농가의 GAP인증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진흥원은 38명의 전문인력이 전략기획, 연구개발, 산업육성 기능, 홍보마케팅, 품질검사 및 GAP인증 등 6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금산인삼의 역사와 장점을 설명한다면.

"현재는 국내 생산되는 모든 인삼을 고려인삼으로 통칭하나 삼국시대에는 고려삼(개성), 백제삼(금산), 신라삼(풍기)으로 나누어 분류했다. 중국 고대문헌 '신농본초경'등에서 '고려삼은 백제삼만 못하다'고 하며 백제삼을 높게 평가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인삼재배의 최적지는 진산군'이라고 해 금산을 최적의 재배지로 평가했다. 현재 수삼의 70~80%가 금산시장에서 거래되며, 금산은 역사, 산업적으로 인삼의 종주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성, 재배상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UN

"우리 몸의 오장을 보호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눈을 밝게 하며...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장수 한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본초학서(本草學書)인 신농본초경(新農本草經)에 인삼의 약효를 설명한 글귀다. 현대과학으로 입증된 약효와 별반 차이가 없다.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금산인삼은 UN FAO로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록될 만큼 그 효능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귀한 유산이다.



FAO로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았다. 금산인삼은 사포닌 함량이 5.2%로 타 지역의 인삼보다 월등하다(김순기,1998). 철저한 품질 검사로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제품 성분검사를 해보면 국내 대기업 제품보다 품질이 뒤지지 않고, 안전성도 우수하며 가격도 저렴하다"

◆금산인삼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한다면.

"첫째, 금산인삼의 GAP인증 비율이 전국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높다, 인삼재배 농가의 실명제 정착, 시장 반입시 안전성 검사강화, 재배단계의 GAP 확대 등으로 금산인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더 크게 확보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인삼의 효능 중 ‘간기능 개선효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능성 등록을 했고, 충남대 서상희 교수가 동물실험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인삼의 면역력 향상 효과를 입증했다. 진흥원이 인증한 제품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의 중점 추진과제는.

"인삼을 원료로 하는 일상식품 개발, 의약품 개발 등 많은 연구과제들을 추진해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고, 인삼산업 종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4차 산업시대에 맞게 인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관련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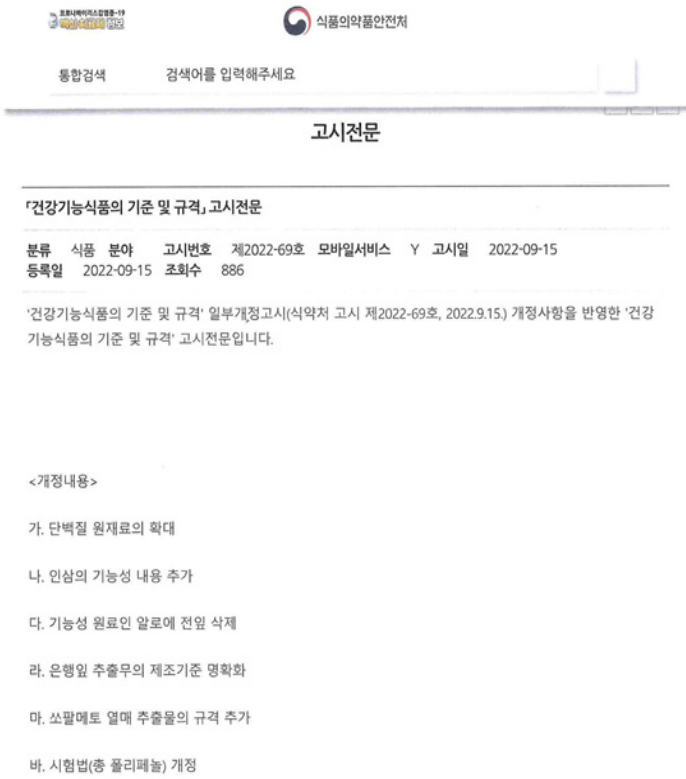
에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AI, IoT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속한 대응으로 효율을 높여야 한다. 인삼소비 확대를 위해 유아, 청소년, 중장년, 반려동물 등 맞춤형 타겟상품을 개발하고, 메디식품, 고령친화식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 뿐만 아니라 일상 식품소비에도 인삼을 포함하는 방안을 개발해 인삼소비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출확대를 위한 할랄, 코셔 등 국제 인증확대, 바이어와 생산자 이커머스 활성화, 영세한 제조업체 시설개선과 협업 등을 통한 상품성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

◆인삼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한 방안은.

"인삼은 민족 설화나 전설 등에 명약으로 등장하는 산삼에서 유래 된 우리민족의 혼이 담긴 특별한 작물이다. 정부는 인삼산업법 개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인삼산업이 발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대기업과 공정 경쟁 할 수 있도록 인삼재배농가 및 인삼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도지사 공약으로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을 국가기관으로 격상 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금산인삼약초산업이 발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

인삼 간 건강 기능성 원료로 제품화 길 활짝 열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삼 간 건강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사장 박범인)은 인삼의 간 기능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가 인정하는 인삼의 고시형 기능성은 ‘면역증진, 피로개선, 뼈 건강 개선’ 등 3가지였는데,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로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추가돼 4가지로 늘어나게 되어 이로써 인삼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는 제품 개발이 가능해졌다.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동물실험과 인체적용 시험을 통하여 간수치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2021년 9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기능성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바 있다.

그동안 인삼이 간에 부담을 주어 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일부의료계의 주장이 있었으나 오히려 인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간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인삼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여 인삼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시형 원료로 전환을 요청하여 2022년 3월 2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고, 9월 15일자로 정식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추가 등록했다.

김영수 진흥원장은 인삼을 원료로 고시된 규격기준에 맞추면 누구나 ‘간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어 인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져 인삼소비를 촉진하여 인삼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연구를 추진한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표미경 책임연구원은 인삼의 간 기능 개선 효과 입증 연구 결과는 국내의 건강 기능성 식품뿐만 아니라 일본의 표시형 기능식품에도 적용 가능한 지 검토 중에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과 홍보를 통하여 인삼의 해외수출지원에도 힘쓰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개발센터 표미경]

금산군, 2023년 시행 소비기한 표시제 안내 소비자 혼돈 방지 목적...현행 유통기한 표시방법 동일

식품의약품안전처

Welcome! 소비기한 Good~bye 유통기한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무엇이 다른가요?

소비기한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021년 8월)으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제조, 유통, 환경 개선까지! 소비기한 도입하면 뭐가 좋을까요?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 폐기를 저감!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듭니다.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로 도약!



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3

금산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 안내에 나섰다.

현재 사용되는 유통기한 표시제는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번 제도가 시행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의미한다.

소비기한 표시는 현행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하며 세트 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 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한다.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의 경우에는 자원낭비 방지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 시행일에 맞춰 여러 품목을 동시에 변경하기 어려운 점과 포장지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표시 준비가 완료된 업체는 시행일 이전부터 소비기한 표시가 가능하다.

단, 영업자의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소비

기한을 미리 적용한 제품임을 공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군의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해 소비기한으로 수정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날짜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가리면 안된다.

군 관계자는 “식량 낭비 및 식품 폐기로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한다”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관계자들께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산군]

제40회
금산인삼축제

40

2022.9.30(금) - 10.10(월)
금산인삼관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

錦山人蔘

금산군 금산축제관광재단

뉴질랜드에서 산양삼을 수확한다. 16년전 북섬에 파종, 중국으로 수출 예정



뉴질랜드 북섬의 글렌첸은 수천년동안 중국 전통 의학에서 사용되어 온 인삼이 뉴질랜드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는 현재 북섬 소나무 숲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다.

글렌첸은 16년전 북섬 중앙 화산고원의 소나무 농장에 인삼 씨를 파종하였으며, 최근 수확을 하고 있다.

글렌첸은 수천년동안 중국 전통 의학에서 사용되어 온 이 귀중한 뿌리에 대해 뿌리를 온전하게 유지해야만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삼은 건강에 좋은 효능이 있다고 믿어지며, 특히 아시아 문화 중국인과 한국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첸은 다공질 화산석, 쌀쌀한 기온, 뉴질랜드 숲의 그늘은 인삼재배에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Kiwiseng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첸은 최근 15년동안 땅속에 있던 4~5그램의 인삼을 발견하였다고 전했다.

현재 Kiwiseng 회사는 숲에 대한 벌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벌목하기에 앞서 모든 인삼을 수확할 예정이다.

첸은 중국으로 인삼을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소나무 숲의 지하작물로서 인삼의 잠재력은 엄청나며 더 많은 산림 소유자에게 인삼을 재배할 것을 권장했다.

첸은 뉴질랜드에서 28년 후에 삼림을 벌채하면 헥타르당 50,000달러의 수익이 예상되지만, 인삼은 12년이 지나면 같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NZ NEWS]

인삼 문화, 유네스코 유산 등재 추진위 가동 농식품부·인삼협회 등 참여 내년 상반기 신청 목표



한국인삼협회가 지난 9월 26일 서울 aT센터에서 '인삼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인삼 업계가 오는 2024년 상반기에 인삼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목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한국인삼협회는 지난 9월 26일 서울 aT센터에서 '인삼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과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이지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과 지역 인삼농협 조합장 등 인삼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등재 추진 경과보고와 추진위원 위촉식,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진행보고 등이 진행됐다.

추진위원회는 농식품부와 한국인삼협회, 고려인삼시군협의회와 농촌진흥청, 인삼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와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 한국인삼6

년근경작협회와 한국인삼경작인연합회, 고려인삼연합회와 고려인삼학회 등 인삼 관련 기관의 단체장이 추진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반상배 추진위원장(한국인삼협회장)은 “고려인삼은 김치와 더불어 오랜 역사와 전통, 종주국으로서의 자부심이 높은 국내 대표적 약용작물이자 국가중요농업유산이다”며 “인삼문화를 세계에 알려 고려인삼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많은 국민과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축사를 통해 “인삼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230만 농업인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인삼 농업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제40회 금산인삼축제 인삼약초시장 차없는 거리 운영 확정



금산군은 지난 21일 금산인삼약초시장 일원에서 제40회 금산인삼축제 차 없는 거리 질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금산수삼센터(대표 김관엽) △금산국제인삼시장조합(조합장 정승철) △금산인삼약령시장회(회장 한정만) △금산인삼약초시장연합회(회장 김대형) △금산인삼농협(조합장 강상묵) 등 5개의 인삼약초시장단체가 참여했다.

군은 시장 상인들에게 축제기간 운영되는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안내하며 차 없는 거리 주·정차 금지, 부정식품 근절, 청결한 매장 운영, 친절환 서비스 마인드 제고 등 협조를 당부했다.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11일간 개최되는 제 40회 금산인삼축제는 '40년의 정성, 피어나는 생명의 꽃'이라는 주제로 금산인삼관 광장 및 인삼약초시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인삼축제 기간 차 없는 거리를 통해 인삼약초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 상인분들과 힘을 모아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군]

금산군, 제40회 금산인삼축제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 금산인삼 대표 캐릭터 삼삼이 활용 금산인삼 브랜드 가치 향상 추진

금산여행 길라잡이 카카오톡 채널 신규 추가 시

선착순 2만 5천명 지원

기간: 9월 26일 ~ 10월 10일



1.

〈금산여행 길라잡이〉
카카오톡 채널 신규 추가!

2.

선착순 2만 5천명 안에
들 수 있게 서두르기!

3.

너무 귀여운
삼삼이 이모티콘 받기♥

금산군은 제40회 금산인삼축제 개최를 기념해 26일부터 금산인삼 대표 캐릭터 삼삼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한다.

이모티콘을 받기 위해서는 모바일 카카오톡 검색창에 ‘금산여행’ 또는 ‘금산여행길라잡이’를 검색 후 ‘금산여행길라잡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된다.

이모티콘은 26일 오후 2시부터 신규 채널 구독자 2만 5000명에게 선착순으로 배포하며 다운로드 후 3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군은 금산전통인삼농업의 농업유산으로서 지닌 가치를 알리고자 대중에게 친근한 농업유산 캐릭터 삼삼이

를 활용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인사말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이모티콘 16종을 개발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금산군은 대한민국 특산품 고려인삼의 종주지로 전통농업의 가치를 지켜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산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인삼 전통 인삼재배법은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농업유산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후 지난 2018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다. [금산군]

국제인삼교역전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 20개국 35명 참가예정 세계충청향우회, 전국체전 참가 재필리핀 · 재독일 선수단도 금산축제 방문



제40회 금산인삼축제가 9월30일부터 10월10일까지 금산군 일원에서 개최되면서 금산군은 손님맞이에 분주한 상황이다. 금산인삼축제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건강을 한국 대표 특산품인 고려인삼이 지켜줄 것으로 기대되면서 금산을 찾는 방문객이 예년에 비해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금산인삼축제는 1981년 지역축제로 출발하여 1999년 제1회 국제인삼교역전을 개최하면서 산업형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움하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벗어나 인삼축제기간 관내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전시, 현장판매, 수출상담회를 위한 제23회 국제인삼교역전인 축제와 함께 개최된다.

국제인삼교역전은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금산에서 생산된 최고품질에 인삼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금산군 관내 30업체가 전시판매장을 구성했으며, 국제인삼교역전 행사의 꽃인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10월5일 국제유통센터 3층에 설치된 상담장에서 미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예멘, 이집트 등 20개국 35명의 바이어가 참석한 가운데 교역전 참가 기업들과 수출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제23회 국제인삼교역전에는 해외동포의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충청도를 고향으로 둔 세계충청향우회 임원단 50여명이 10월 1일금산을 찾아 축제를 즐기며, 국제인삼교역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세계충청향우회 서봉석 사무총장은 코로나로 인해 3년만에 고국을 방문하는 즐거움과 함께 인삼의 고장 금산을 방문 할 생각에 고국방문일정이 기다려진다고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10월 7일부터 울산에서 개최되는 103회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재필리핀대한체육회, 재독일대한체육회 선수단이 각각 10월 6일과 8일에 금산 축제장을 방문해 고국의 정취를 만끽할 예정이다.

한편, 박범인 금산군수는 28일 오전에 축제부스가 설치되는 현장을 방문하여 “축제를 즐기기 위해 금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께서 생명의 고향 금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11일간 열리는 제 40회 금산인삼축제는 ‘40년의 정성, 피어나는 생명의 꽃’이라는 주제로 금산인삼관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홍보마케팅팀]



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새생명, 고품질, 금산
세계로, 미래로

2022
국제
인삼
교역전



2022
INTERNATIONAL
INSAM
TRADE FAIR

2022. 9. 30 (금) - 10. 10 (월)

금산인삼축제장



주최  금산군

주관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Geumsan Ginseng & Herb Development Agency



농정원, 코로나19 전후 명절 선물 트렌드 분석 결과 발표 코로나도 못 꺾은 농산물 인기... 명절 선물 1등은 '과일'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원장 이종순)은 코로나19 전후 '명절 선물' 트렌드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첫 명절(추석)을 맞아 코로나19가 한국인의 명절 선물 트렌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온라인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된 227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4년간 명절 선물 트렌드 키워드는 '비대면', '프리미엄', '다양성'이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명절 선물은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이는 이동자제 권고 등 방역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직접 고향을 방문하는 대신 비대면으로 명절 선물을 전달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 명절(설·추석) 연휴 일평균 이동인원(만 명) : ('19) 647 → ('20) 587 → ('21) 477 → ('22.설) 432(출처: 한국교통연구원, 설·추석 연휴 통행실태조사)

* 연도별 추석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액(억 원): ('19) 3,745 → ('20) 6,896 → ('21) 7,213(출처: 통계청, 온라인

인쇼핑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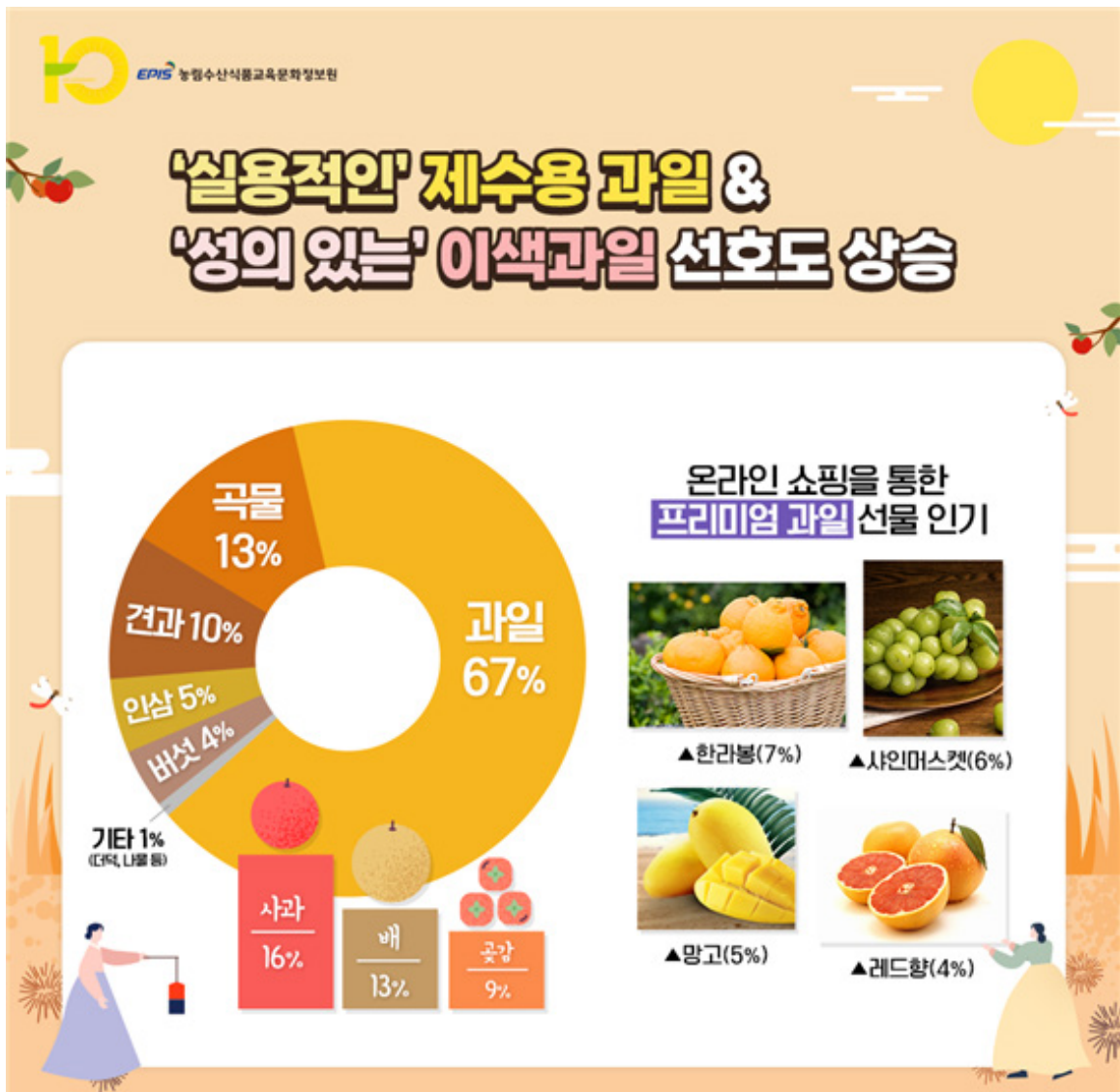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에 갈 수 없게 되자 선물로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 프리미엄 선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300만 원 한우세트, 자동차 가격과 맞먹는 와인 세트 등 기존 프리미엄 선물을 뛰어넘는 초(超)프리미엄 선물세트가 이목을 끌기도 했다.

* 언론 주요 보도내용 비중(%): 프리미엄 선물 강제(34) > 명절 선물 다양화(30) > 청탁금지법 한시적 기준완화(21) > 친환경 포장재(10) > 정부 성수품 관리 등(5)

* 명절 선물 고려 요인 정보량(Top5, 4개년 누적) : (1위) 가격(213,195), (2위) 건강(196,066), (3위) 프리미엄(152,362), (4위) 배송(131,786), 패키지(124,558)

코로나19는 명절 선물의 다양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간 선물용으로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방역용품이 새로운 관심 품목으로 등장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전제품, 주류 등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품목, 비대면으로 선물할 수 있는 기프트콘 등의 언급량이 증가했다.

* 코로나19 이후 정보량 증가 품목(%): 방역·위생(184.9), 가전(60.7), 주류(36.4), 기프트콘(27.5), 커피·음료(19.6), 농산물(14.7)



코로나19 여파에도 전통적 명절 선물인 ‘농산물’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과일’은 농산물 언급량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과, 배, 꽃감, 대추 등 제수용 국산과일이 상위권을 형성했으며, 한라봉, 포도(거봉, 샤인머스켓 등), 망고 등 이색과일 또한 명절 선물용으로 많이 언급되었다.

이는 제사음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실용적 측면과 가격대가 높은 이색과일을 선물하여 성의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명절 선물 품목별 언급량(%) : 농산물(34.6) > 건강식품(18.0) > 가공식품(13.4) > 커피·음료(7.5)

* 명절 선물 주요 농산물 언급량(%) : 과일(67) > 곡물(13) > 견과(10) > 인삼(5)

*선물용 과일 주요 품목 : (1위) 사과, (2위) 배, (3위) 꽃감, (4위)

한라봉, (5위) 포도

분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농정원이 매월 발행하는 농업·농촌 이슈 트렌드 보고서 ‘FATI(Farm Trend&Issue)’ 3호에 담았으며, 농정원 누리집(www.epi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농정원 이종순 원장은 “이번 추석은 예년보다 한 달여 빨라 농업인 여러분과 유통업체 관계자분들이 벌써 한가위 준비에 분주하다.”며 “농정원도 우리 농수산물품 모음집*(마음이음마켓) 등을 통해 우리 농식품 선물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 농수산물품 모음집(마음이음마켓) : www.holidaygift.co.kr

[농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24일간의 여정 시작! 9월 30일 기대 속에 화려한 개막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인삼,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가 24일간의 여정에 돌입했다.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30일 오전 풍기인삼 시배지인 개삼터에서 고유제행사를 시작으로 주 행사장인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의 인삼게이트 앞에서 개장식과 1호 입장객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주 무대에서 인삼대제 행사를 거쳐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개막 행사를 펼쳤다.

개장식에는 박남서 영주시장, 이희범 조직위원장을 비롯하여 박형수 국회의원, 심재연 영주시의회 의장, 박성만 도의원, 임병하 도의원이 참여하여 엑스포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개막행사는 아나운서 박찬민, 문소리의 진행으로 퓨전 국악팀 ‘다락’이 축하공연의 막을 열었으며 팝페라 가수 ‘배은희’, 영주시 연합 합창단이 엑스포 성공을 기원하며 마음과 목소리를 모아 공연했다.

개막식은 이희범 조직위원장의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박남

서 영주시장의 환영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개회사로 이어졌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축하영상을 보내 엑스포 개최의 성공을 기원했다.

개막식 공식행사 후 이뤄진 축하공연에는 엑스포 홍보대사인 인순이를 비롯하여 송가인, 정동원, 브레이브걸스, 비투비 등의 인기 가수들이 참여하여 화려한 무대를 선사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 지역에서 처음 개최하는 인삼엑스포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며 “전반적인 산업 침체의 영향으로 인삼 산업 전반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엑스포를 기점으로 지역의 인삼 농가들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24일간 개최되는 엑스포 기간중에는 ‘Everyday Festival’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매일 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이에 걸맞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니 엑스포 행사장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재미와 건강을 함께 얻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시청]

한국인삼협회,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인삼홍보관' 현판식 실시

인삼문화·효능·역사, 호텔 공간 컨셉과 접목해 전시·휴식 제공
전시 공간외 사전 신청자에 한해 '인삼 비밀의 방' 입장이 가능



(현판기준 가운데 바로 왼쪽) 이희범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조직위원장, (현판기준 가운데 바로 오른쪽)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 ©한국인삼협회

한국인삼협회가 30일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에서 개막된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의 전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인삼홍보관의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삼홍보관은 한국인삼협회 주관으로 설립됐다. 후원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다.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내에 설치된 공간으로 공간의 주제는 '진생호텔'이다. 인삼의 문화, 효능, 역사 등을 호텔이라는 공간 컨셉과 접목시켜 다양한 전시, 체험, 휴식을 제공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현판식에는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 이희범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조직위원장, 이학구 부위원장 및 영주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은 "고려인삼의 다양한

내용들을 호텔과 접목시킨 인삼홍보관에서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장에 감사함을 느끼며, 많은 관람객분들이 방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24일간 개최된다. 인삼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 체험, 공연, 요리 등을 맛볼 수 있다. 인삼홍보관에서는 전시 공간 이외에도 사전 신청자에 한해 '인삼 비밀의 방' 입장이 가능하며, 상시로 인삼 족욕, 인삼 게임, 인삼 타로점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전국에서 생산되는 수삼과 인삼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EBN]

금산군 개최 2023년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일자 확정 오는 2023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



2023 충청남도체육대회

CHUNGCHONGNAM-DO SPORTS FESTIVAL 2023

금산군에서 개최되는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일자가 오는 2023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으로 확정됐다.

이번 일정은 충청남도체육회가 지난 8월 31일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충청남도종합체육대회위원회를 열고 결정했다.

군은 대회가 추석과 금산인삼축제와 비슷한 시기에 열려 서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금산군체육회와 함께 충청남도체육회

에 관련 의견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남은 기간 추진되는 대회 준비 사항은 경기장 시설정비, 공개행사 기획 등이 예정됐다.

군 관계자는 “금산군에서 열리는 충청남도체육대회가 지역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시기로 개최가 결정된 것 같다”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금산군을 최대한 알릴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군]

인삼가격정보(자료: 금산군청)

상기 인삼류 가격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삼의 전반적인 거래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실제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자료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금산군은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삼류 가격동향(2022. 9. 12.)

4근 곡삼	30편		36,000원	50편		35,400원	75편		34,200원
		전시세	36,600원		전시세	35,400원		전시세	34,200원
		등락	-600원		등락	0		등락	0
		전년동기가격	38,400원		전년동기가격	37,200원		전년동기가격	36,000원

4근 직삼	15편		43,200원	25편		42,600원
		전시세	43,200원		전시세	42,600원
		등락	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42,600원		전년동기가격	40,800원

5근 직삼	15편		45,600원	25편		42,600원
		전시세	45,600원		전시세	42,600원
		등락	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43,200원		전년동기가격	40,800원

6근 직삼	15편		50,400원	25편		44,400원
		전시세	50,400원		전시세	44,400원
		등락	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50,400원		전년동기가격	45,600원

미삼	상품		90,000원
		전시세	90,0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90,000원

생건삼	상품		90,000원
		전시세	90,0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90,000원



생삼(수삼)	10뿌리		35,000원	20뿌리		24,000원	30뿌리		23,000원
		전시세	36,000원		전시세	24,000원		전시세	23,000원
		등락	-1,000원		등락	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29,000원		전년동기가격	21,000원		전년동기가격	22,000원

40뿌리	40뿌리		23,000원	50뿌리		23,000원	70뿌리		24,000원
		전시세	23,000원		전시세	23,000원		전시세	23,000원
		등락	0원		등락	0원		등락	-1,000원
		전년동기가격	22,000원		전년동기가격	22,000원		전년동기가격	24,000원

금산 재발전

천내강의 다양한 얼굴



사진은 천내습지의 봄 - 금강사진 공모전 입선작입니다. 금산은 유독 산과 강이 많아 금강을 사이에 두고 협곡이 펼쳐지는 곳이 많습니다. 그 중에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드는 천연의 모습을 간직한 천내강이 있습니다. 제원면 저곡리와 개티 건너편의 천내강 사이에 있는 금강 상류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데요~ 천내습지에서선 초여름, 아름다운 반딧불이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른아침 물안개를 머금은 풍경은 낮을 잃게 만드네요~



사진은 천내강의 물안개. 제원면 용화리에는 용강(천내강의 다른 이름)이 흐릅니다. 무주 구천동에서 나온 맑은 물이 금강으로 가는 곳입니다. 소용돌이와 굽이가 적고, 경관이 빼어나습니다. 매년 5월 말에서 6월 초 용강 주변에는 전국 최대 개체수를 자랑하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습니다. 깊은 밤 용화리 천내강변 습지를 가득 채운 화려한 군무는 경이로운데요! '빛의 향연'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사진은 천내강변에서 담은 반딧불이.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천내 강변에 나가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붉은 빛, 물에 비치는 붉은 일렁임을 바라보면서 잠시 무념무상에 빠져보아도 좋겠습니다.



천내강의 일몰 모습입니다.



사진은 천내강변 삼락원 노을. 겨울이 다가오고 찬바람이 불어오면 이른 아침 천내강변에 화려한 상고대가 우리를 반겨줍니다. 아무때나 강변에 간다고 상고대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도와 습도가 맞아야 하는데요. 아침 온도가 영하 10도 이상 습도가 90% 이상 일때 아름다운 상고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천내강변의 상고대. 산수 좋은 금산의 대표적 강변 유원지인 천내강이 훼손되지 않길 바라고 천내강의 사계가 언제까지나 오늘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 김종철 군민리포터



2022. 10. 08 (토) 15:30~

금산인삼축제에서 열리는 특별한 에어쇼,

블랙이글스 공연



2022. 10. 08 토요일 15:30 주행사장에서
블랙이글스 공연이 시작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 40회 금산인삼축제 | 무대공연 라인업 공개 |



가수 변진섭



가수 장민호



가수 홍진영



가수 박혜경



가수 김다현



가수 임정희

개막식 축하공연 9월 30일 금요일 19:00	홍진영, 신유, 김다현, 윤수현, 백호, 빈종남 사회자 : 이은지 (TJB 대전방송 아나운서)
K-트롯대전 10월 1일 토요일 19:00	장민호, 김수빈, 김하정, 신미래, 양지원 사회자 : 이창명
K-드라마 OST 콘서트 10월 2일 일요일 19:00	임정희, 포맨, 요아리, 박승화, 박진광, 임희자(이미자 모창가수) 사회자 : 혜진이
CMB 프라임 콘서트 10월 8일 토요일 19:00	박군, 조정민, 이도진, 장혜리, 레이디티, 이동준, 연예진, 양희나 사회자 : 박종훈, 이채령
금산인삼 K-POP 페스티벌 10월 9일 일요일 16:30	한요한(랩퍼), 경서(발라드), 클라우드베이(랩퍼)
추억의 가요톱10 콘서트 10월 9일 일요일 19:00	변진섭, 박혜경, 윤영아, 김승진 사회자 : 김성수(쿨)
폐막식 축하공연 10월 10일 월요일 19:00	배일호, 한혜진, 영기, 정다경, 남궁옥분, 해바라기, 배영호

9월 30일~10월 10일
금산인삼축제에서 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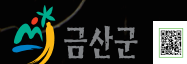


하늘선물 금산인삼

면역력에 답하다



김산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하늘선물 금산인삼!
금홍마크와 G-마크로 정품을 확인하세요



QR코드로 제품정보 및 정품인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산이 Geumsan
Ginseng
뿌리입니다

발행일 2022. 09

발행인 김영수

발행처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전화 041-750-1672

팩스 041-750-1679

주소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25